



# 삼출성 중이염

박문서/한림의대 교수, 한강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귀** 이 귀에 물이 차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귀에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답답한데 고막 안쪽에 물이 차있더니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러한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없는데다가 어린아이의 경우 자기 표현을 잘할 수가 없고 주위에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어서야 발견되는 수가 많다.

환절기에는 코감기 등에 속발해서 삼출성 중이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귀, 코, 목은 해부학적으로 서로 통해 있는 기관이고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기관인 관계로 이곳의 질환들도 자연 상호 연관성이 많다. 즉 코와 귀는 '이관'이라는 튜브로 통해 있기 때문에 코나 목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귀로 파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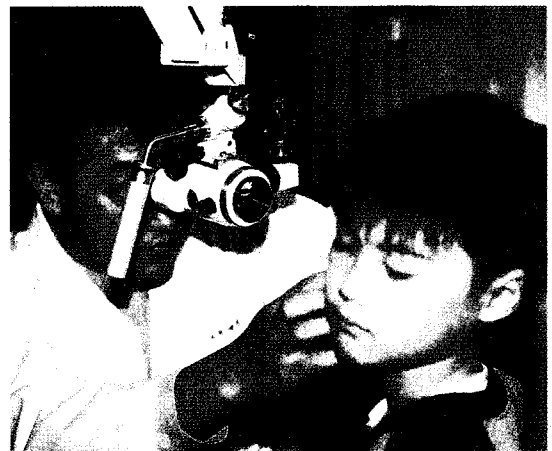
이 삼출성 중이염은 어린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세 명중 두 명은 한 번 이상씩 걸리게 되는 흔한 질병이다. 즉 어린아이들의 난청의 원인 중 가장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 1. 귀의 구조

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귀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일 끝부분, 즉 '이개'라 부르는 귓바퀴와 여기에서 고막에 이르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외이도를 포함하는 '외이'가 그 첫 번째 구조물이고 다음으로 고막을 포함하여 그 안쪽에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방을 형성하는 '중이'가 있는데 여

기에는 밖에서 들어온 소리를 내이에 있는 신경부위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다.

바로 이곳이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는 곳인데 이렇듯 고막 안쪽에 물이 차 고막이나 구조물들이 주변의 액체에 의해 둘러 쌓이게 되므로 외부로부터의 소리에 의한 진동을 신경계로 전달해줄 수 없게 된다.



## 2. 삼출성 중이염의 원인

삼출성 중이염은 보통 알레르기, 급성비염, 인두염 등의 원인이 되어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게 된다.

또 많은 경우에는 코 뒤쪽의 '아데노이드'라 부르는 살덩이가 만성 염증을 일으켜 생기기도 하며 급성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가 안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급성 중이염은 귀가 몹시 쉬시고 열이 나며 난청이나 이명을 동반하기도 하는 병으로 보통 2~4주 내에 치료되는데 그 치료가 불충분하였

을 때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 3. 삼출성 중이염의 증상

증상은 귀에 물이 차 있으므로 우선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다.

경우에 따라 물 흐르는 소리 등 이명이 있고 자신의 음성이 동굴 속에 들어온 것처럼 크게 울려서 들리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잘 걸리므로 발병 초기에 진단이 안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TV를 유난히 크게 튼다던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를 부를 때는 잘못 알아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와 확인되는 수도 많고,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 학업능률이 안 오를 때 알고 보면 삼출성 중이염이 문제인 경우도 종종 있다.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청력손실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 4. 치료법

처음에는 항생제 등의 약물요법으로 물을 말리는 것이 기본일 테지만 우선 원인이 되는 코나 목의 염증, 알레르기, 부비동염(축농증) 등을 치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달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고막에 환기관을 삽입해 주어 물이 나오게 하고 환기가 되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

이 환기관 삽입술은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데 삽입된 환기관은 수개월이 지난 후 저절로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아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비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삼출성 중이염은 주로 학교에 다니기 이전이나 학동기 소아에 많으므로 실제로 이 시기에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우선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평소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감기 등 상기도염증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감기만 걸리면 목이나 코가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을 먼저 받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말을 막 배워가기 시작하는 어린 나이에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칫 지능 발달이나 발음 등 언어 구사 능력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올바른 칫솔 사용법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칫솔법은 회전법으로 잇몸의 깊은 곳에 칫솔을 대고 그대로 부드럽게 씹는 면에 이를 때까지 움직여주는 동작을 십여 차례 정도 한 후, 위치를 바꿔 반복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칫솔모의 단면이 수평이고 털의 탄력이 중간급이며 손잡이가 직선형 또는 약간 앞으로 굽은 것이 좋다.

한편, 잇몸에 염증이 심한 사람은 1~2줄의 부드러운 칫솔을, 인공치아를 장착하고 있는 청소년은 앞에서 볼 때 가운데가 파인 칫솔을, 그리고 구강이 불결한 사람은 탄력이 강한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치아뿐만 아니라 혀바닥도 함께 닦아야 틈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혀바닥도 칫솔질해주도록 한다.